

고령층 경제활동 1,000만명 돌파 연금만으로는 부족... "73세까지 일하겠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고령층(55~79세)의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계속 일하길 희망하며, 원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에 달했다. 연금 수령자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생활비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통계청이 6일(한국시간)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7,000명으로 전체 15세 이상 인구의 3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1,001만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 1,000만명을 넘겼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2만8,000명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고령층 취업자도 978만명으로 1년 새 34만4,000명 늘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씩 상승하며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취업 산업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7%)과 제조업(12.5%)이었으며, 직업군으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2.6%)와 서비스 종사자(14.5%)가 많았다. 반면, 관리자(2.1%)나 사무직(8.3%)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고령층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 현재도 종사 중인 비율은 30.1%에 그쳤고, 나

머지 69.9%는 평균 52.9세에 해당 직장을 그만뒀다. 퇴직 사유로는 '사업 부진·폐업'이 25.0%로 가장 많았고, '건강 문제'(22.4%), '가족 돌봄'(14.7%) 등이 뒤를 이었다.

■ 연금으로 생활 어렵다 "계속 일할 것"

고령층의 연금 수령 현실은 더욱 엄혹하다.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사람은 850만2천명으로, 고령층의 절반 수준(51.7%)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6만원에 그쳤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1,000원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임이 확인됐다.

이 같은 현실은 고령층의 근로 의향 통계에도 반영됐다. 장래에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1,142만1,000명으로 전체의 69.4%에 달했다. 근로 희망 연령은 평균 73.4세로, 1년 전보다 0.1세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54.4%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6.1%), '무료한 해소'(4.0%), '사회적 역할'(3.1%), '건강 유지'(2.3%) 등이 뒤를 이었다.

희망하는 월 임금 수준으로는 300만원 이상(21.5%)이 가장 많았고, 200만~250만원 미만(19.4%)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300만원 이상을 희망한 비율은 전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했다.

고령층 진료비 4년새 40% 급증 전체 의료비의 46%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4년간 40% 가까이 증가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에 육박해, 고령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6일(한국시간)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7조4,737억원이었던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 급여비)는 지난해 52조1,221억원으로 39.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집계된 고령층 진료비는 이미 27조9,817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수준을 다시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고령층 1인당 진료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474만1,000원이었던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536만8,000원까지 올랐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8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2020년 43.1%였던 비중은 지난해 44.8%로 증가했고, 올해 6월 현재 46%에 달하며 절반에 육박한 수준이다.

김미애 의원은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고령층이 차지하는 현실은 급속한 고령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이미 본격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처럼 고령층 진료비 증가세가 이어지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올해까지는 4,633억원의 흑자를 유지하지만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 수지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는 30조원대를 유지하겠지만, 2028년에는 28조4,209억원 수준으로 감소해 이는 건강보험 지출 기준 약 2.7개월치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산층 노후 주거 대안 '공공 실버타운' 재추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이 중산층 연금 수급자를 위한 '공공 실버타운' 사업, 즉 노인복지주택 공급 모델 개발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연금 급여와 연계한 새로운 공공 주거 정책을 구상하면서, 본격적인 사업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노인복지주택사업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2025년도 연구용역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연금 수급자와 연계한 수요 맞춤형 모델 개발에 방점을 둔다. 국내외

실버타운 사례를 분석하고 실제 수급자 대상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택 공급이 고용 창출 및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다각도로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모델은 값비싼 민간 실버타운과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임대 사이에서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연금 받는 중산층'을 겨냥하고 있다. 자산은 부족하지만 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내 집 같은' 공공 실버타운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yung Sook Yu, D.D.S

스페셜 교정치료!

\$3000
부터
(무문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크라운
(PFM)
\$65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800부터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